

- ◆... 간경변증이란 만성간염이 장기간격
- ◆...속된 끝에 간에 섬유질이 침착되고
- ◆...부드러운 간실질이 위축되어 간의정
- ◆...상적인 형태가 소실되며, 흉터 사이
- ◆...에 남아 있는 간세포의 재생으로크
- ◆...고 작은 결절을 형성하게 되어서,
- ◆...결국 이러한 결절과 섬유질이 섞여

서 자갈밭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을따...  
 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간경변증의...  
 증세는 개개인에 따라 그 정도가매...  
 우 다양한데, 진찰이나 간조직검사를...  
 통해 진단된 간경변증 환자라도 간...  
 기능검사상 이상 소견없이 원기왕성...  
 하게 지내는 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간경변증은 불치의 병으로아는 수가 많은데그렇지 않으며, 전혀 간기능의 이상이없는 이른바「잠재성 간경변증」은 4명의 환자중 1명꼴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간의 능력은 포용력이 강하기 때문에 간경변증이 있어도 정상기

# 肝경변증의 治療와 관리



◆肝경변증의 치료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사실은 간에 나쁜 약을 먹을 경우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까지에는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 藥劑선택시에 반드시 醫師의 지시에 따라 복용토록 해야할것이다. 능을 얼마든지 유지할수 있는 히 못할수도 있다. 따라서 열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간경변증의 치료는 이와같이 남아있는 간기능을 더 나빠지지 않도록 꾸준히 보호하여 주는 것이다.

식이요법은 병든 간에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간조직의 소모를 보충하고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칼로리 고단백의 균형된 식사를, 환자의 입맛에 맞도록 조리하여먹는것이다. 보통 하루 2천칼로리 이상의 열량을 함유하고 체중 1kg에 1g의 단백질이 함유된 식사가 바람직하나, 이와같은 양을 먹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변화있는식단이어야한다.

흔히 하루에 쇠고기를 몇근씩 먹음으로써 고단백식을 섭취하였고 그로인해 간염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기만 계속 먹는다고해서 간염이 낫지는 않으며, 같은 음식만 먹다보면 곧 물리게되고 도리어 단백질이충분

량과 단백질은 여러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먹음으로써 구할수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중산층이 섭취하는 음식에 육류를조금더하여 먹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육류도 쇠고기 외에 돼지살코기나 닭고기, 또 달걀이나 두부, 생선등에서 적절히칼로리와 영양을 섭취할수 있다. 또한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신선한 야채및 과일도 틈틈이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입맛이 없을때엔 아이스크림이나 과일카레 일도 좋다. 그러나 생간과 천엽이 좋다. 고 해서 너무 치중해서 먹다 보면 지용성 비타민인 A,D, E,K라든지 구리및 철분도 필요이상 섭취하게 되므로 오히

려 간세포에 독작용을 일으키게된다. 또 황달치료의 민간요법으로서 오이썩지를 코에 태우는 무리한 행위를 한다든가 재치국이나 조개국을 많이 끓여먹는데, 이것도 구리성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어 간에 부담을 줄수 있다.

그러나 고단백식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간성뇌증상이 생겨 지능의 장애가 나타난다든지, 말이 어눌해지면서 기억력도 회미해져 본적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잊어버린다든지, 또수면의 장애가 올 경우엔 식이내의 단백질이 혼수를 일으키는 암모니아 성분의 재료가되므로 일질 단백질의 섭취를 금해야

## 복수가 찼을때는 헛배가 불러 1일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 여섯번 정도 나눠서 섭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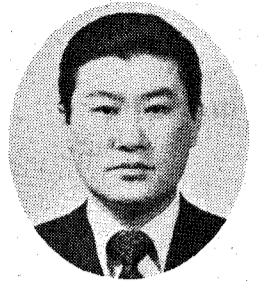
한다. 그러다가 간성뇌증이없어지면 다시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부터 단백원을공급하면 좋다.

복수나 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무염식을 주어야 한다. 요리중에 전혀 간을 하지 않더라도 식품중에 포함 되어있는 염분때문에 하루에적어도 4g의 염분을 섭취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이보다 적은 양을주기 위해서는 염분이 적은 식품을 골라야 한다. 복수가 찬 환자의 콩팥에서는비정상적으로 염분을 몸안에서구축하려는 현상을 보이므로, 소금을 먹으면 오줌으로 배설시키지 못하고 계속 고여서 복수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소금에 적인 음식이나 빵, 국수 그리고 과자류는 금하여야 한다.

철저한 안정및 식이요법을위해서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으며 복수가 많이 찼을때에는 헛배가 부르기때문에 충분한 식사량을 섭취할수 없으므로 하루에 먹을 양을 여섯번 이상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자주 먹도록 해야 한다.

이와같은 치료가 효과가 없을때에는 이뇨제를 사용하게되는데, 부작용이 덜하고 온건한



金 丁 龍

〈서울醫大내과교수〉

발을 방지할수 있어서 좋은효과를 볼수있다.

## 비교적 온전한 藥劑부터 시작 1일 1kg 이상 体重이 줄지않도록 반드시 醫師의 지시에 따라 이뇨제등 藥劑복용 바람직

약제부터 쓰기 시작하고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더욱강력한 이뇨제를 병용하기도한다.

이따금 환자가 스스로 이뇨제를 사먹고 상태가 악화되어 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너무강력한 약제를 처음부터 쓰면 수분이나 전해질 대사에 이상이 올수 있고 또한 신부전이나 간성뇌증상이 나타나므로, 이뇨는 가능한한 하루에 1kg 이상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의사의 지시하에 서서히해야한다. 알부민주사는 일시적인 이뇨효과가 있을수 있으나 큰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복수 치료의 반응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간기능이 얼마나 전재하느냐에달려 있는 것이지 치료방법에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간경변증이라도 기능이 잘살아 있으면 안정이나저염식같은 간단한 치료로써복수가 소실되지만 심한 기능의 저하가 있을 때에는 강력한이뇨제를 써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수가 많다.

간경변증의 무서운 합병증중의 하나인 식도정맥류 파열로 피를 토하거나 새까만 피똥을 누게되는 경우에 즉시 입원하여 저혈시기도록 해야 하며, 일단 출혈이 멎은 뒤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식도정맥류의경화요법을 수차례 시행하면 많은 환자에서 정맥류출혈의 재

간경변증 환자가 이유없이체중의 감소를 보이면 우선 간암의 발생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간경변증에 당뇨병이합병하지 않았나를 알아내야하며 간부전상태가되고 영양실조에빠져도 체중감소가 일어날수 있다.

따라서 간경변증환자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간암을조기발견해야 하는데, 간암이 확진되면 우선 주치의와 상의하여 수술에 의해 암종을 제거할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간경변증이 심하지 않고 간암의 범위가 국한되어 있으면 수술적으로 절제가 가능하기때문이다. 수술 외에도 항암제와 혈관조영술을 이용한 간동맥색전술등의 방법으로 간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약을복용하는 문제인데, 돈이 많으면 이약 저약 쓰게마련이고 약을 잘못써서 돌이킬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가되는 경우가 자주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간에 나쁜 약을 먹을 경우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까지에는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따라서 인내력을 가지고 의사가 시키는 그대로간경변증의 치료를 꾸준히 함으로써 자기의 천수를 다할수도 있는 것이다.



### 당뇨병성망막증

진보된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치가 되지 못하는 난치병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 수많은 미소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나 고혈압등에 의하여 이들 미소혈관에 병변이 발생되면 다시 정상회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망막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취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환자는 혈당관리, 고혈압 환자는 혈압관리가 매우 중요한 동시에 각종의 혈관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 보호제를 투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나 혈압관리가 잘되고 있는 환자도 병력에 따라 망막증의 발병율이 증가되므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망막증의 예방 및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당뇨병! 왜! 후루다렌을 복용하는가?

### 망막증에 대한 후루다렌의 약효입증!

후루다렌®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약물중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임상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물입니다.

최근 당뇨병 및 고혈압의 혈관 합병증 치료제로 유럽에서 각광을 받은 후루다렌의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자 국내 8개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과학교실에서 Multi Center Study를 12개월간 실시후 종합평가의 결과 후루다렌은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약80%이상 호전 또는 안정되는 양호한 성적을 얻었으며 또한 내약성도 매우 우수한 약물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망막증의 초기단계에서 후루다렌을 투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후루다렌은 당뇨병성 백내장, 신경증 및 신증등의 당뇨병 관련합병증에 대해서도 개선효과를 나타낸 바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의 미소혈관 합병증을 치료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약물입니다.

후루다렌의 약효에 대해 궁금하신다면, 후루다렌을 복용하시는 분께 후루다렌을 보내드립니다. 문의처: 삼일제약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51-101 (보신동) SP 1